



## 한 알의 씨가 떨어져

김홍식 장로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이사장)

모든 것이 멈추어진 듯 했지만 자연의 섭리에 따라 열매가 영글어 가는 가을, 추수의 계절이다. 주님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라는 탄식이 가슴에 다가온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에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믿는 자들은 그저 작은 일에 수종을 들 뿐이다.

우리 조상들과 나는 돌이켜 보면 선교사님들의 수고로 많은 복을 받은 사람들임을 느낀다. 서울에서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에 나는 당시 인기 있던 전기공학이나 컴퓨터 공학을 하여 성공하겠다는 생각으로 지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 말 나는 심한 열과 기침을 앓게 되었다. 당시 보통 하듯이 동네 약방에서 해열제와 진통제를 사 먹고 며칠이 지났지만 병세가 점점 심해졌다. 당시 아버님이 미국에 유학하던 시절이라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형편에 병원에 가지 못하고 끄떡 앓고 있던 중 교인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안내를 받았다. 나는 ‘이 선생님’을 만났고 여자 선생님이셨는데 자세한 진찰 후, 폐렴 진단을 내리셨다. 나에게 직접, 폐 x-ray를 설명하신 후, 주사도 주시고 먹는 항생제를 주셨다. 몇 번에 걸쳐 치료를 받을 때마다 나의 병세는 호전되었고 ‘이 선생님’의 친절과 진료에 감명을 받았는데, 더구나 치료비도 면제해 주셨다. 그 후 나도 의사가 되어야겠다고 마음을 정하고 진로를 의과대학으로 바꾸어 고려대학교 의과에 들어가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몰랐지만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은 그 대학이 1891년 한국에 오셨던 캐나다 선교사, Dr. Rosetta Sherwood Hall과 Dr. William James Hall 부부가 세운 조선여자의학강습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이었다. 후에 이 강습소는 경성여의전, 서울여자의과대학으로 되었다가 다시 수도의과대학, 우석대학교를 거쳐 현재의 고려대로 된 것이었다. 나의 폐렴을 치료해 주셨던 ‘이 선생님’도 고려대 전신 학교를 졸업한 분이셨다. Dr. Hall 부부 선교사님은 일찍이 현지인들 교육의 중요성을 깨달았던 분들이셨다. 선교사님들의 아들 Sherwood Hall은 1983년 한국에서 태어나 자란 후 캐나다에서 의학 공부를 하고 다시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당시 만연했던 결핵 퇴치를 위해 활동하며, 대한민국에서 크리스마스 실을 처음으로 발행하여 결핵요양소를 운영하였다. 그분의 수고로 대한민국에서 결핵 퇴치에 힘써준 분들과 더불어, 한국에서 크리스마스 실을 발행하게 된

그 선교사님들은 교회 개척도 활발하게 하여 많은 조선인들이 복음을 접하게 되었다. 나의 친할머니도 그때 선교사님들이 세우신 교회를 통해 복음을 받고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 후 친척과 자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알았고, 한 선교사님의 가정의 희생과 헌신으로 한 나라가 변화되는 것과 우리 가문이 직접 축복받은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도 그들이 세우셨던 학교의 혜택을 입은 셈이다. 그 후 나와 같은 의과대학 출신인 나의 아내도 복음의 빛진 자라는 것을 알고 의료 선교에 깊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수 십 년 후에 이런 저런 모양으로 열매를 맺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무릎을 꿇을 뿐이다.

의료는 예수님이 직접 사역하신, 말씀 선포와 병 낫게 하심에 항상 동반되었던 사역이다. 아픈 자들에게는 병 낫게 하심은 복음의 한 부분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찾게 해주는 매우 중요한 사역이다. 연약하고 작은 자들에게 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미주 아프리카 미래재단에서 잠비아의 제라 보건대학의 강 의동 건축에 동참하여 대학이 확장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 아닐 수 없다. 아프리카의 각 나라 마다 여러 가지 필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러한 사역들 중 재정이 들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현지인들을 세우는 교육은 중요하다. 사람을 키우는 것은 나라의 미래를 일으키는 밑거름이 되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있는 듯 하고 도무지 열매가 열릴 것 같지 않았던 조선에도 시간이 흐른 후에 풍성한 열매들이 맺어지는 것을 보면서,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시라는 것을 다시 확신한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이신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은 큰 축복이며, 다시 한 번 되새겨련다.



아프리카미래재단 사역탐8

# 부르키나 파소



함께하는 AFF 가족  
김정남&박소현 선교사



유치원 운영 및 태권도 교실 사역활동을 통해 아이들의 건강하고 전인격적인 성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등학교 건축을 시작하여 등록 절차를 밟고 있으며, 더 많은 아이들에게 양질의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회와 목회자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장소를 마련하여 좋은 지역, 좋은 건물을 빌려 사용하고자 합니 준비하는 모든 과정에 기도로 함께해 주세요.



## 코로나 시대의 재외국민 의료지원 민관 협력 방안

박상은  
(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 샘병원 미션원장)

코로나-19 팬데믹은 사회 전반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것이지만 보건의료는 가장 직접적이면서도 큰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미국의 민영의료시스템이 초토화되고 그토록 자랑스러워 하던 영국을 비롯한 유럽의 사회주의 공공의료시스템마저 맥없이 무너져 내렸다. 그 어떤 재난에도 촘촘한 안전망으로 극복해온 일본과 싱가포르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서 만큼은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어떻든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 한국의 방역체계는 선진국들에게조차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대통령은 수십 개국의 정상들로부터 방역노하우와 진단장비 지원을 요청 받고 있다. 이는 한국의료의 높은 수준과 의료진의 헌신, 문턱이 낮은 전 국민 의료보험체계, K-바이오의 괄목할 만한 성장, 그리고 양질의 방직기술로 생산하는 마스크와 개인보호구, 디지털을 이용한 철저한 방역시스템 등이 어우러져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음이 분명하다. 개발도상국들도 한국의 의료장비와 진단키트, 한국산 마스크와 방호복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는 해외에서 한국인들과 한국 상품이 새롭게 자리매김하면서 K-방역이 새로운 한류의 축을 형성하게 됨을 의미한다. 아프리카에서도 이미 식민지통치를 통해 막강한 영향력을 끼친 유럽과 미국은 점차 쇠퇴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 이후 이들의 역할은 극도로 위축될 것이며, 이 자리를 대신해온 중국과 일본, 인도 등도 이번 전염병의 대처에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로 부터 외면을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반해 유독 대한민국에 대해서만큼은 한층 더 높은 신뢰를 보이며 이전의 K-Pop, K-Drama 한류에 이어 K-방역, K-의료로 확대되어 대부분의 나라에서 한국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

필자는 아프리카미래재단 대표로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아 11개국 아프리카 의료진들에게 개인보호구를 지원하였으며 6개국에 긴급생계 지원사업을 진행하였고, 우리나라 방역대책본부의 K-방역 매뉴얼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아프리카 국가들에게 보내어 활용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각 분야의 의료전문가들로 자문단을 구성하여 아프리카 각 국가의 정책 결정에 자문을 시행한 바 있다. 해외국민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맞아 한국을 귀국할 것인지 현지에 남아 있을 것인지 고민하게 된다. 대부분의 이민자와 장기 체류자들은 생업으로 인해 남을 수밖에 없으며, 외교관들과 기업의 필수 요원, 장

해외국민 코로나 의료지원은 각각의 상황에 맞게 진행되어야 하며, 크게 세 가지 상황으로 나눌 수 있다. 첫째는 비대면으로 현지의 한국인 의료인을 연결시키거나 한국과 원격으로 연결하여 상담과 진료를 진행하는 것이다. 둘째는 검사장비 및 의약품을 현지에 지원하고 한국의료진을 현지에 긴급 투입하여 대면으로 진료하는 형태이다. 셋째는 전세기를 이용하여 집단으로 한국으로 귀국 조치하여 진료받게 하거나 응급 에어앰블란스로 긴급 후송하는 방안이다. 실제로 카톡을 비롯한 SNS를 통해 해외국민들이 다양한 도움을 실제로 받고 있다.

한국의 각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있는 7000카톡방에는 하루에도 수 차례 해외국민의 진료상담이 올라오고 있으며, 실시간으로 해당분야의 전문의가 가장 적합한 치료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다. 환자의 증상 뿐 아니라, 피부사진이나 상처부위 사진을 보내기도 하며, 현지에서 촬영한 가슴사진과 CT필름, 검사성적도 얼마든지 카톡으로 전송하여 세밀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년간 수백건의 해외국민의 진료가 이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대부분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려스러운 부분은 이러한 진료행위가 아직은 불법이며, 만일 상담 결과가 좋지 않은 경우 법적 소송으로 비화될 때 법적으로 보호될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또한 짐바브웨, 말라위, 마다가스카르의 경우, 현지 국민들을 위한 코로나-19 전문치료약과 진단키트, 그리고 산소발생기를 요청하여 지원한 바 있으며, 이를 위해 외교부의 도움으로 특별방법으로 운송이 가능하게 되었다. 지원한 산소발생기와 치료약은 해당 대사관이나 한인회관에 보관하여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해외국민이 코로나에 확진된 후 현지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았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한국으로의 긴급 후송의 요청이 여러 차례 있었으나 비용이 워낙 비싸 1억 원이 넘는 항공비를 부담할 수 없는 환자들은 중도포기 하였으며, 두세 건은 비용을 모금하여 에어 앰블란스를 보내어 환자 후송을 순조롭게 진행할 수 있었다. 여기에도 비자 발급과 해당 항공사와 3의 연락을 비롯한 행정적인 절차에도 민관의 협력이 요구된

# 선교사 통신



## 우간다 선교 소식 이현수 선교사



우간다에서의 바쁜 일정을 다 소화하고 다시 귀국 길에 나선다. 학교 건축이 한국에서의 재정 송금이 어떤 "피할 수도 있을 이유" 때문에 많이 늦어지면서 지지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게 몹시 안타깝다. 교회 건축도 마찬가지로이지만 다행스럽게도 미국 워싱턴을 주축으로 뉴욕 시카고 일리노이 등 여러 곳에 계시는 건축 관련 엔지니어분들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재능기부를 통해서 이곳 우간다 나카송고라에 랜드마크가 될 교회를 디자인해주기로 감사한 결정을 해주어 지난 9월 25일 착수미팅을 zoom으로 갖고 설계에 착수했다.

미국에 사는 한국인 아키텍터들이 우간다에서 선교하는 한국 선교사와 함께 이런 교회를 설계하고 건축한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라는 주님의 가르침에 본보기적으로 순종하는 협력 사업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

제2농장의 토지문제가 그동안 이것도 피할 수도 있을 이유 때문에 잘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가 두 달 전 하순부터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서 10월중으로 어떤 가시적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 토지문제가 계획대로 진척이 되는 경우 10월 안으로 어쩌면 우리 선교센터도 비워주고 이사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미리 출국 하루를 앞두고 농장으로 이삿짐을 옮겼다. 지금까지 힐링과 재충전에 큰 몫을 감당해온 눈앞 풍요로운 경치가 얼마 안 있으면 나와 우리를 떠날 것이라는 사실에 아쉬움과 숙연함이 느껴진다. 내 경치를 마지막이라는 느낌으로 카메라에 담아보았다.

다음 시즌부터 수확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망고 처리를 위한 두 가지 서로 다른 형식(heat pump dryer & freezing dryer)의 건조기 설치와 180여 명의 우리 식구들의 식량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어려운 이웃들의 식량문제를 도울 목적의 포소공장 기계 설치를 마치고 귀국할 수 있게 되어 마음이 한결 가벼웠다.

공장의 공간에 여유가 생기게 되어 고추가루를 킷치옥과 고추장 등 가래... extr... 가 만... 있었다.

농장의 간판도 자외선의 휘방으로 3년을 못 넘겼는데 이번에는 제작비를 1/3쯤 더 부담하고 자외선차단제를 확실하게 도포해 7년의 수명을 보장받게 되었고, 야간 조명까지 갖추게 되어 농장 안내의 역할을 제대로 할 것 같은 느낌이다. 호주 시드니의 인정상 후배의 연결로 시드니의 새순교회와 우리는 교회에서 코로나바이러스보다 굶주림이 더 무섭다는 우간다의 어려운 이웃과 수재민을 위해서 보내준 후원금으로 귀한 사랑을 나눌 수 있었고, 이어서 손양원 목사님의 믿음을 물려받은 우리 중동기독신우회에서 수재민을 위한 만 원의 행복 모금을 통해서 후원금을 보내주어서 수재민들의 이주와 관련해서 의미 있는 사용처를 주지사와 협의의 중에 있으며, 한국의 소방안전협회에서 기증받은 119 앰블런스 2대중 1대를 같은 지역에 주둔하는 군부대에 기증하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함께 할 수 있게 인도해주신 하나님과 후원의 손길에 감사를 드린다.

한 가지 마음이 아픈 고질적인 사건이 발생해서 의욕이 꺾이는 아픔도 겪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앞서 가시기에 따라가야 한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 학교부지에 설치한 능형철망 휨스를 큰 비바람이 치던 지난 9월 25일 밤에 트럭을 동원한 전문 절도범에 의해서 무려 300미터(3m 간격의 콘크리트 기둥 100개 분)나 도난을 당했다. 우리 학교 부지 이쪽 저쪽에 록다운 기간 통행금지 시간대에 차량 검문을 위한 police check point가 설치되어 있고, CCTV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직 이렇다 할 수사 진행 소식을 듣지 못하고 있다. 아마도 주지사가 이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경비원을 거론한 것처럼, 내부자의 가담 없이 불가능할 것이고 거기다가 도둑을 잡는 소임을 가진 경찰이 일부라도 눈감아주는 부정은 개입되지 않았기를 바래본다. 소는 잃었지만 외양간은 고쳐야 하겠기에 한국에 있는 자동화 전문인 옛 동료에게 전자적인 도난 방지책에 대한 도움을 받아 다시 윗타리를 부와할 때 함께 시설하려고 한다.



## 우간다 선교 소식

### 김세현, 노미정 선교사



오늘 공항으로 출발하면서 한 시간쯤 달려가고 나서 휴대폰을 안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되고 미안하지만 다른 차로 뒤따라 오도록 부탁을 했다. 조금 서두른 게 화를 부른 것 같다. 실수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세관 검사를 위해 노트북을 꺼내 놓고서 가방 5개를 챙기느라 정신을 빼겨서 노트북을 챙기는 것을 그만 잊고 말았다. 체크인 카운터에 찾아와 준 세관공무원. "당신 노트북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서 백팩에 들어있다는 대답과 함께 백팩을 여는 순간 실수를 깨달았고 아차! 하고 말을 걸려는 순간 그 아가씨인지 아줌마인지 "It's Ok! Don't worry! It's safe!" 환하게 웃는 그 모습에서 "나이는 속일 수가 없지요!"하는 자학적인 메시지를 읽게 된다. 도착해서 얼마를 기다린 덕분에 노트북과 휴대폰을 같이 전달받게 되어 "thanks!" 무지막지하다. 이런 실수를 반복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을 계속 붙잡고 있는 것이 동역자들에게 짐이 되지 않는 줄이야! 주님도 아직 포기하지 않으셨을 거야! 아전인수적인 자기 합리화를 떠올린다. 12시 정오가 조금 넘어서 라운지에 들어왔는데 너무 이른 시간이라서 라운지에는 나 혼자 뿐이다. 서비스 하는 직원들도 심심했었던지 자꾸 "뭘 갖다주랴?"고 재촉한다. 한 시간쯤 지나서야 5~6명으로 늘었다.

비싼 비즈니스를 타기 때문에 라운지에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는 동안에 열심히 벌여놓은 마일리지 누계 때문에 가방도 1개 더 허용받고 라운지도 허용이 되니 감사한 일이다.

동역하는 김철한, 김영순 권사님이 채소를 잘 가꾸어주셔서 한국 선교사님들에게 채소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는데 앞으로 채비를 좀 더 갖추게 되면 원하는 채소를 보다 편리하게 상시 공급할 날이 머지않아 오리라고 기대해 본다.

1. 팬데믹 아래에서도 여전히 주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선교를 하다보면 때로는 어두운 현실 앞에 낙심되고 답답해지기도 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 주님이 일하시고, 우리 성령님께서 앞장서서 일을 추진하시고 작품을 만드심을 보기 때문입니다.

2. 두 달 전에 창원 마산에서 기쁨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간다에 필요한 어린이 교회용 주일학생들은 위한 학용품, 티셔츠.. 등을 지원해 주시려는 달달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또 우간다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을 치는 부족에게 옥수수가루 5,000키로의 긴급 식비 지원이 도착했습니다. 어제는 깨끗한 물을 보급하기 위한 우물지원비로 다 연결되어 평평 .. 물이 쏟아져서 마을 사람들이 우물증정식을 하며 축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할렐루야.

3. 이 모든 것이 거의 동시에 한 교회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선교사로서 살면서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손길을 아주 가까이 느낍니다. 우리 생각을 언제나 초월하시고, 기대 이상으로 기적을 베푸시는 그 분을 찬양합니다.

4. 선교를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한 방에" 처리가 됩니다. 저는 이 단어 '한 방에.. 한 방에'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복잡하게 계산하고 머리를 짜내지만, 다 버리고 주님 앞에 다 내어드리면, 성령님께서 모든 문제를 한 방에 해결합니다. 아멘 이지요?

5. 온 마을의 축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선교사가 준비해 준 태극기를 손에 들고 우물 주위를 찬양하며 돕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 이후로 물 때문에 고통받아 온 시골인데, 한국 마산에 있는 제일문창교회(담임 목사: 허성동 목사) 를 통해 하나님의 아프리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찬양 속에 성령님을 기억하고 높입니다. 또한 선교사의 자기 부족을 향한 사랑도 기억하고 무

기 있어 행복한 선교사



를 포함합니다. 기쁨과  
.. 지금 선교사는 입이  
.. 려의 능력 때문에. 성  
.. 는 역사로 인해 더 크게



## 힐링을 넘어 살롬으로

나삼진 목사

(아프리카미래재단 USA 사무총장)

사람들이 '힐링'이라는 말을 즐겨 사용합니다. 김난도 교수가 《아프니까 청춘이다》와 《천 번은 흔들려야 어른이 된다》를 출판하면서 청춘들의 멘토가 되더니만, 한 목사는 《아플 수도 없는 마흔이다》를 써 40대의 아픔을 위로했습니다. 모두가 아픈 세상입니다. 세계화 시대의 한 복판에 외롭게 선 젊은이들이 무한 경쟁에 내몰리며 상처를 받아 '힐링 캠프'를 보며 힐링을 구합니다. 사람들이 힐링에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갖는 우리 사회에 건강하지 못하다는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와 이 시대의 문제는 웰빙이나 힐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웰빙이나 힐링은 목적이 아니라 그것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살롬이어야 합니다. 살롬은 인간과 이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 때에 인간과 창조세계에서 살롬을 원했지만, 인간의 범죄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살롬은 하나님의 평화로, 인간이 자신의 모든 관계에서 바르고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평화를 누리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전쟁이나 적대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올바른 관계에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기독교는 현실 세계와 무관한 천상의 문제만 다루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처로 고통을 당하는 이 세계와 그 속에 사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고치고, 바꾸고,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회복시켜 살롬을 주시고, 이를 누리게 하십니다.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다섯 가지 관계에서 살롬을 추구해야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과의 살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그를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살롬은 예배와 교제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음을 받은 존재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다른 피조물을 예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게 되는데 이 우상은 자신이나 물질, 욕망이나 명예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살롬을 경험하지 않고는 다른 관계에서 살롬을 얻을 수도, 누릴 수도 없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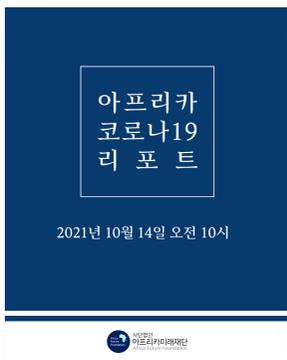
둘째로 이웃과의 살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다른 사람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인격을 파괴하는 온갖 부정의가 얼마나 많습니까? 또 그러한 부정의 때문에 고통 당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자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으로 억압하고, 폭력으로 짓밟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현상은 교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야 합니다. 이 땅을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으로 만들어야 합니다(시 85:11-12). 월터 스톨프가 말한 것과 같이 "정의가 없으면 살롬도 없습니다. 살롬은 정의 이상의 것입니다." 셋째로, 자신과의 살롬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죄인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모든 인간이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으로 산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자신과의 살롬을 누리고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살롬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넷째로, 창조세계와의 살롬입니다. 처음 세상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세상이었지만, 죄가 들어온 이후 땅에는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창 3:18). 이사야는 그날에는 창조세계 안에서 미움과 증오가 없어지고, 피조물 사이에도 평화의 관계가 형성될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사 11:6-8). 오늘날 인간의 욕망 때문에 창조세계가 얼마나 더럽혀지고, 황폐화되고 있습니까? 우리 시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창조세계와의 살롬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일과 직업세계에서의 살롬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일하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일을 통해 자신의 존재의의를 드러내고 자아를 실현합니다. 우리는 자신이 맡은 일을 즐기며, 일과 직업세계에서 하나님의 살롬을 완성해 가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 COVID-19 사태 발표, 감염자 및 사망자 급격히 증가

아프리카미래재단은 매주 외교부 자료를 받아 금요일 '아프리카 코로나 19 리포트'를 발표하고 있다. 지난 9월 24일 오후 발표된 최근의 통계는 아프리카 연합(AU)에 속한 55개국의 COVID-19 감염자와 사망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 모두 8,311,299명이 감염되었고, 207,685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기존 입국 금지 국가인 소말리아 외에 마다가스카르, 보츠나와, 카메룬, 콩고를 입국금지 국가로 지정하였고, 격려조처국으로 가봉, 모리셔스, 부룬디, 베냉, 튀니지 등 5개국을 포함시켰으며, 그 외 42개국은 검역을 더욱 강화하도록 했다. 아프리카미래재단이 발표한 9월 24일 현재 각국 사망자 수를 기준으로 상위 5개국은 다음과 같은 바 회원들의 기도와 헌신이 요청된다.



코로나19 리포트



아미랑 게스트하우스

### 임원 모임, 업무 점검과 Venmo도입키로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에서 오랜만에 미국본부 임원진들이 모여 미주본부의 사역을 점검하였다. 지난 10월 3일에 모인 업무 점검회의는 이사장 김홍식 장로 부부가 사무총장 나삼진 목사와 재정팀 황길남, 황로미 등 실무진들을 초대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동안의 업무 보고와 재정상태를 점검하였다. 이날 모임에서는 AFF USA 기구 운영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세대에 맞는 Venmo와 같은 새로운 송금 방법을 도입하여 다양화하기로 하였다. 이날 임원회에서는 앞으로 단계적으로 1세 회원 사역을 중심으로 하되, 1.5세 및 2세 회원 사역을 확대하되, 장기적으로는 2세 사역이 정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역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선교사 게스트 하우스 '아미랑' 오픈

아프리카미래재단은 지난 6월 선교사들의 국내 임시 거처로 사용될 게스트 하우스 아미랑을 오픈 하였다. 게스트하우스의 이름 <아미랑>인데, '아미'는 아프리카미래재단을 줄여서 부르는 말인 '아미재'에서 따왔고, 하나님의 군사라는 'Army'의 의미와 '랑'은 '~와 함께한다'와 사랑채 량(廊)의 의미를 담았다. 게스트 하우스는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로, 교통이 매우 편리하고 쾌적한 아파트이다. 아프리카 선교사들께 따뜻한 휴식과 쉼을 드리는 공간으로 사용되길 소망한다. 게스트 하우스 '아미랑'은 최대 3개월까지 이용이 가능하며, 이용을 원하시는 선교사님들은 재단 대표 메일을 통해 문의하면 일정 확인 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 게스트하우스 관련 문의: [aff@africaff.org](mailto:aff@africaff.org)  
 제라토건대 강의동 건축 모금 22,000달러로 집계

아프리카미래재단 USA는 한국 본부의 제안에 따라 잠비아 제라토건대보건대학 강의동 건축을 담당하기로 하고, 그동안 모금을 전개해 왔다. AFF USA에서는 기금에서 5만 달러를 출연하고, 그동안 모금해 왔는데, 9월 말로 집계한 결과 모두 22,000달러가 모금된 것으로 집계되었다. 1차 5만 달러를 송금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추가로 송금할 계획이다. 아프리카미래재단 뉴스레터 여름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건축은 기초공사에서 벽체와 지붕 공사 등 상당부분이 끝났지만, 이를 담당하는 허일봉·진미령 선교사가 치과 치료를 위해 한국을 방문중이라 내년 2월경 준공되리라 예상된다. 이 사업은 잠비아 보건의로 인력 양성 지침의 변경으로 인해 새로운 제도에 따른 준비를 하는 것으로, 국가 보건의로 인력양성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헌금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린다.

### 홈페이지 작업중

AFF USA의 사역 활성화를 위해 미국본부의 홈페이지를 직접 개설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한국본부에서 영어 홈페이지를 운영해 왔지만, 미국본부와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미국본부의 실정에 맞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다. 이에 미국본부의 독자적인 홈페이지를 개설하기로 하고, 11월 오픈을 위해 준비하기로 하고, 초기는 한글로, 장차 2세를 위한 영어판으로도 확대할 예정이다. 미국본부에서는 이를 한국 아프리카미래재단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운영하기로 하였다.



## 아프리카를 꽃피우는 손길, 함께해 주세요.

### 기관번호(FEIN)

■ 83-4396614

Africa Future Foundation

\*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 714-732-1484 (미국) +82)2-342-9182 (한국)

✉ aff@africaff.org

🌐 www.africaffenglish.modoo.at (영어)

🌐 www.africaff.org (한국어)

🗣️ 아프리카미래재단    📷 africafuturefoundation

### 후원하는 방법

#### ■ 수표 보내실 때

- 받는 사람: Africa Future Foundation
- 주소: P.O.Box 5362 Fullerton, CA 92838

#### ■ 송금하실 때

- 은행: Bank of America
- 계좌번호: 3251 2035 5776
- Routing 번호: 121000358
- SWIFT 코드: BOFAUS3N

### USA 본부/지부



## 선한 청지기들 2021. 7. 1 ~ 21. 9. 30

## / 재정정보고

Simon Paek, GugHyun Chang, Ann Chung, Sunny Han Chung, Michelle Lim, Andrew/SoYoung Kim, Hyong Pak, Micheal Yang, David Yoo, William Han, Woong Han 김응원/김재선 김은식 김홍식 나삼진 박예원 백형순 송영은 신영애 양해중 이승숙 이준현 이홍철 정진철

허철신 새벽이슬교회 OC살롬교회 OC한인교회 북가주Joyful교회 Livingstone Home Health

지정헌금: 송영은 송은석/이원희 Michael Yang OC한인교회 Jeong Garry

\* 혹시 이름이 누락된 경우, AFF 사무실(714-732-1484)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입

(단위: \$)

### 지출

전기이월  
75,398.32  
7월 현금  
13,740.00  
8월 현금  
4,960.00  
9월 현금  
4,880.00  
분기 수입  
23,580.00

사업비/남아공 김경환 2,000.00  
사업비/남아공 이원준 3,000.00  
뉴스레터 인쇄비 584.32  
뉴스레터 발송비/우편료 316.24  
정부 등록비 25.00  
사무용품비 251.84  
분기 지출 소계 6,177.40  
잔액(차분기 이월) 92,800.92